

늦게 온 동장군... 폭설에 갇힌 광주·전남

광주 최대 14.2mm ... 체감온도 영하 13도까지 ‘뚝’

호남고속도로 22중 추돌사고... 최강추위 26일까지

19일 광주지역에 최고 14.2mm의 눈이 쌓이고, 영광의 체감온도가 영하 12.8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이 폭설로 쾅쾅 얼어붙었다. 전남부터 내린 많은 양의 눈과 강풍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하늘 길과 바닷길이 막히고, 주요 도로가 방판길로 변해 고속도로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사고와 정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기사 6면>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40분께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와 태인IC 사이 정읍휴게소 부근(133km 지점)에서 차량 15대와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모(70)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2시간 동안 교통이 통제됐다. 18~19일 사이 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만

20여 건의 교통 사고가 접수됐다. 광주지역에서는 24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36명이 눈길에 미끄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광주지역 시내버스 98개 노선 중 23개 노선(133대)이 단축 운행됐고, 11개 노선(101대)이 우회했다. 광주공항에서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 혹은 지연됐다. 전남지역에서는 55개 항로에 92척의 배가 운행을 중단했고, 지방도 840호선 등 3개 도로가 통제됐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광주 14.2mm를 최고로, 나주·곡성 13

cm, 화순·담양 12.5cm, 장성 1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기온도 곡성·구례 영하 9.1도, 담양 영하 6.9도, 영광 영하 6.5도, 광주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20일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리고, 오는 26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23~25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민 뜻 받들 공천방법 모색”

더민주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
“빠른시일 내 사퇴...백의중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19일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빨리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중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야권연대에 대해 “그동안 전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범야권의 연대된 힘으로 이번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호남 지역 민심 이반에 대해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도 “호남과 야권이 바라는 것은 새로워지고 이기는 정당이 되어달라는 것”이라며 “당을 새롭게 만들고 호남뿐만 아니라 호남 바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당을 만들어낸다면 호남 민심도 다시 우리 당으로 돌아와서 우리 당을 선택해주



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공천시스템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지 않다. 우리 당은 이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공천제’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렸다”며 “호남에 대해선, 특히 광주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절차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표는 탈당 사태에 대해 “정치의 기본은 대의명분인데, 우리 정치에 대의명분이 사라졌고, 최근의 야권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합류 현역 국회의원들 “기득권 포기·경선에 참여하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 후보 결정 과정에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기득권 포기 선언은 탈당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재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맞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마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오전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합의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총선승리·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어떤 경우에도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가 당의 명령임을 명심하고 모든 결정을 당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현역으로서의 어떠한 보장이나 공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 서명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에 참여하거나 합류 의사를 보인 14명의 의원(김한길·김영환·김동철·주승용·문병호·유성엽·장병완·권은희·김관영·김승남·임내현·최원식·황주홍·신학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철저한 반성이 없는 데다 사퇴 사절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별다른 의미를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김종인 ‘국보위 활동’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 활동 논란이 정치권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중인 안철수 의원은 김위원장을 영입한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9일 더민주 문재인 대표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

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원칙있는 패배가 낫다고 하셨는데, 원칙 없는 승리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노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더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만약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크게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의 최원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선대위원장의 전력을 들어 “광주 학살사건 직후 국보위에 참여해 국회의원을 했고 노 대통령 탄핵 때에도 앞장 선 분을 당의 얼굴인 선대위원장

“5·18정신과 광주 자존심 훼손” 전정배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

으로 모신 게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전정배 의원도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이) 제1야당의 위원장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도 이날 “전두환 국보위 참여 전력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임명은 광주 민심은 전혀 고려

하지 않은 것으로, 광주시민들의 상처를 다시 해집는 행위”라며 “5·18 광주민주화투쟁을 심각히 훼손하고 광주 자존심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두고두고 더민주 당에 대한 광주 민심 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트위터 등 SNS에서도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트위터 닉네임 ‘제우스당’은 “전두환 국보위 출신 김종인 선대위원장 앉혀 놓고 광주시민들 염장 지르려고 광주에 오느냐. 차라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입해라”고 적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지역발전, 행복체감 시대를 열어갑니다.

창조적인 지역발전,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Happiness Opportunity Partnership Everywhere	주민행복 체감 균등한 기회 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어느 곳에서도 보장받는 삶의 질
---	---

- 지역행복생활권정책 고도화로 국민행복 체감시대 실현
-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국민통합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한 선진한국 기반 확립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